

- 사회변천과  
간호를결정  
하는 요소.

## 사회학적 견지에서

서울대 문리대 교수  
한 완 상

※발표한 녹음 tape에서 발췌한 것임.

### 1. 사회발전과 간호의 관계

사회발전의 정의는 대단히 막연하고, 모든 사람이 합의하는 개념은 얻기가 어렵고 매우 거시적임에 비해, 간호는 몇가지 애매한 문제가 있긴 해도 비교적 정의되어질 수 있고, 미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둘을 의미있게 연관시키기는 어려우나 구체어 연관시켜 본다면 사회발전을 나타내는 지표 몇가지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경제발전은 GNP로만 나타낼 수 없고 GNW와 GNS의 세가지가 동시에 균형적으로 상승할때에 사회발전이 온다고 하면 이중 GNW와 GNS는 보건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겠다. 다시 말하면 한나라 전체의 국민 총 부지와 국민 총 만족도의 성장은 보건문제와 관련있고, 따라서 보건문제와 일관된 간호와도 연결된다고 본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간호학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발전을 한다는 것은 즉 산업화를 잘한다 혹은 GNP가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나 여기서 오는 건강의 손상, 오염을 통해서 생기는 질환등으로 이에 따른 치료비는 GNP에서 빼야 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GNW = GNP (growth national project) - GNP (growth national pollution)라고 말한다. 물론 이것이 간호의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해도 보건의 문제와는 관련이 있는 것이다. 두번째, GNS도 중요하다. 한나라가 사회적으로 발전된다고 할 때 돈을 벌고, 수입이 많아지고, 병원에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하여 심리적으로 사는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것은, 간호를 좁은 의미로 보는데서 탈피해서 넓은 의미로 볼 때, 즉 total nursing이라는 견지에서 볼때 GNS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가 관료화되고, 거대화되고, 빠르게 움직이고, 복잡화 되었기 때문에 사회자체는 파편화되고 인간관계는 얽아지므로 GNS는 굉장히 중요시 되고, 아울러 social nursing 같은, 인간을 전체로 봐주는 care 내지 cure가 필요하다고 느껴 간호의 확대된 사명과 의무는 굉장히 크다고 본다.

### 2. 사회적 역할로서의 간호

간호원은 복잡한 사회조직체에서 일하는 하나의 role이라는 인식이 새삼 떠오른다. 간호원의 주위에는 의사·환자·타 간호원·가족을 중심으로한 병원밖의 사회가 있으나 좁은 의미로 볼 때 환자와 의사와 가장 가까워야 한다. 그러나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간호원·환자·의사 이 셋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다. 예전에는 간호원이라 하면 의사의 보조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조를 포함하고, 그것을 능가한 그 자체에 독특한 무엇이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는 간호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의 되는 것 같고, 또 확실치 모르는 간호학자도 있는 것 같다. 여기에 간호원의 identity crisis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여간 의사와 간호원의 사이는 smooth한 것 같지는 않다.

쓸데 없는 간호원의 inferiority complex가 있

는가 하면, 의사들의 superiority complex가 있어서 그 사이의 조절이 잘되지 않고 있다.

간호원의 세가지 기능을 보면 ① care ② cure ③ coordination이 있는데, 위의 문제는 ③에 포함된다고 본다. 이렇게 간호원은 심한 역할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사용하여 환자에게 베풀어 주느냐 하는 것이 바로 간호원의 role인 것 같다.

또한 환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병원은 인술이니, 도덕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병원도 일종의 관료적이고, 복잡한 하나의 조직체이다. 그러나 병원의 속성이 다른 관료조직체와 같이 되어 있다면, 즉 간호원과 환자와의 관계가 구청직원과 고객과의 관계라면 병원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이다.

### 3. 간호의 사회적 사명

현대 사회가 거대화 됨에 따라 비인간화 되어지고, 현대인은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압력을 느낀다. 따라서 그런 사회속의 조직체인 병원에서도 비인간화되어 간혹 간호원들이 환자를 care의 object로만 생각하지, 주제로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사를 놓는 등의 육체적 care보다는 뭔가 환자의 입장에 서서 그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간호원을 원하고 있는데, 과연 현대 간호원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또한 환자들은 한번 병원에 입원하면 마치 전과자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간호원은 환자로서의 identity를 고려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신이 환자였다는 생각의 악순환을 제거해 주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인간 관계의 속성을 두가지로 분류하면

1. Instrumental function; 조직이나 단체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기능.
2. Expressive function; 조직체내의 인간관계를 잘 조절하는 것, 감정 관리를 잘하는 기능.

참다운 사회발전은 위의 두가지 기능이 다 만족 되어야만 이 병원 구실을 다할 수 있다. 그중 Instrumental function을 의사나 병원 행정자가 한다면, Expressive function은 간호원이 한

다고 볼 수 있다. 만약 Expressive function이 Instrumental function에 밀려 버린다면 그 병원은 창백한 total institute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간호원의 임무가 care, cure, coordination이라면 그것은 병원내에서 뿐만 아니라, 병원밖에서 더욱 필요하다. 즉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는 침대에 누워 있지만 앓을 뿐이지 불건전한 생각과 환경으로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이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육체적 아픔, 정신적인 아픔으로부터의 해방이라면 그 근본적인 사명은 바로 간호원의 사명이 아닌가고 생각 한다.

### 질 의 응 답

### 한 완상 박사

사회; 병원이나 사회 어느 조직이나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문직업자체도 이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하나는 instrumental function, 다른 하나는 expressive function이다. 어느 점에 있어서 병원이란 조직에서의 전문직업 중에서 의사와 간호원은 이 두 기능의 배합이 각각 어떻게 다르다고 사회학적 견지에서 보고 있으신지? 그리고 Instrumental function이나 Expressive function의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환자·간호원·의사간의 관계속에 순조로운 조화가 결정지어 진다고 보며 또 이것이 Instrumental function(기술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는 잘못된 경향 때문에, 간호원의 inferiority complex, 의사의 superiority complex가 파생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 따라서 환자·간호원·의사간의 관계가 순조롭지 않은 것도 이런 문제점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어떻게 보는가? Nursing 자체도 저희가 보기에 instrumental function, Expressive function이 있다고 보며 동시에 Unique한 Nursing function이라면 Instrumental function도 있지만 Expressive function에 더 Unique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Nursing identity crisis가 있다고 하셨는데 성문

화되지 않는 탓으로, 또한 변천, 발전과정에서 오는 잡음이며 간호에도 identity는 있다.

한; 간호원이라는 역할안에는 instrumental function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과 간호원과 내과 간호원이 있을때, 외과 간호원이 내과 간호원 보다는 더 instrumental function을 하며, 정신과 간호원은 더 expressive function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간호원·의사·환자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볼 때 주르 의사 역할은 instrumental한 것이고 간호원 역할은 expressive하다고 할때 두 역할이 잘 조화되지 않을 때 자칫하면 identity crisis가 생기는게 아닌가도 볼 수 있다. 의사는 instrumental function만 담당하고서 expressive는 마치 이차적인 function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사실 병원에서 instrumental function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expressive function이다. 특히 환자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의사가 expressive를 무시하고 이 기능은 어디까지나 보조원이 해야 한다고 인식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회; inferiority complex, superiority complex가 어떤 것을 중요시하고 어떤 것을 중요시 하지 않았던 이 두가지 기능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환경에 기인된다고 생각하는가?

한; 기인, 그것이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사회; 그러면 기인이 되는 하나의 element라고 보겠군요.

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간호원들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한박사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전문직을 향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 사항이 아닌가? 특히 Nightingale 얘기가 나오고 거룩한 천사론이 나온다면 이것은 전문직에 대한 정당한 요구 방법일 것인가? 내 생각으로 꼭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전문직업을 향해 덜어 써주는 보자기다. 의사들에겐 인술이라는 말로 돈이 있거나 없거나 꼼짝없이 치료해 주도록 선생님에게 교직자, 성직자라는 말로 어떠한 모반도 거부도 못하게, 간호원들에겐 맥외의 천사를 써워 초인간적인 선함을 발휘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존사회가 우리들을 향해 행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종종 생각한다.

대체로 간호의 기능을 말하면서 그 기능을 자

꾸 넓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간호원 스스로가 정당한 사회적 인 대우를 받고 정당하게 사회를 향해서 이익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의 정당한 생존권을 찾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능을 그렇게 넓히지 말아 달라는 것이 나의 심정이다. 간호계의 권위자 V. Henderson이 쓴 Basic principles of nursing care(이송외역)에서 기술된 간호의 역할, 기능이 너무 엄청났다. 즉 간호원의 기능은 의사적인 기능, 물리치료사적 기능, 영양사적 기능, 사회사업적 기능, 정신지도자적 기능, 교육가적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과연 이런 범 사회적인 엄청난 기능을 스스로 자처해야만 하는가? 과연 이렇게 자처한 다음이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더구나 이 책의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는 간호원은 전문적인 어머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사실상 전문적으로서의 기능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합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회 전문적인 어머니의 기능과 Nursing의 기능과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Nursing is a Kind teacher, total nursing care, helping relationship.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간호원 스스로 범위 확대를 하면서 스스로 클레를 써우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한; 윤박사의 발상법으로는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간호원을 간호부로 부를 때 의사의 보조자로서의 미미한 역할로 되돌아 가라는 것은 아닌 줄 알지만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다. 병원밖에서의 care, cure, coordination의 역할은 바로 간호원이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간호원이 해야 할 속성의 일들이 병원밖에서도 많다는 말이다. social care, social cure, 이런 일들은 나 같은이, 정치가, 목사 모든이가 다 해야만이 사회 발전이라는 말과 맞아 들어 간다. 그러나 성격을 봐서 Exp. f.이 잘 들어가는때, 그 function은 조직체 내에서 간호원속에서도 잘 볼 수 있는 일이다. 어머니의 역할은 간호원이 해야 하는 일이며 간호의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속에 사회적인 것을 다 넣을 필요는 없다. 간호원의 사명은 현태에서는 병원밖에서도 요청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